

행복한 아침을 맞는
제자들의 교회

제자훈련에 대한 큰 오해가 여전히 여러 목회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제자훈련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그중 하나다. 그러나 제자훈련은 교회의 외적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평신도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로 키워내는 사역이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데 충분함을 믿는다.

지금도 도처에서 보이지 않게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제자훈련 사역을 하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 이번호 <디사이플>에서 소개하는 행복한제자교회가 바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이다. 비록 크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여 오직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제자들이 세워진 이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무것도 없는 자

송정수 목사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사역자로서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송 목사는 정읍의 원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집안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존감이 매우 낮고 성격적 결함도 많았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것으로 푸는 탓에 학교에서 가장 뚱뚱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

대학교도 바로 들어가지 못해서 군 생활을 마친 후에야 신학교에 진학했다. 아무것도 몰랐던 학부시절부터 개척 전까지 12년 동안 개척 교회 부교역자 생활을 했다. 어려운 환경과 집안의 반대 때문에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9년 만에 학부를 마칠 수 있었다. 학부를 채 마치기도 전인 25세 때 자신보다 2살 연상이었던 김영미 사모와 결혼을 했다. 김 사모는 송 목사와 어떻게 사귀고 결혼하게 되었냐는 질문에 “전도사님이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더라고요”라는 말로 답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송 목사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것도 아니어서 교회 사역을 지원해 줄 사람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았으며, 원래부터 성품이 사역자로서 적합했던 것도 아니었다.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부교역자 사역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에게 있었던 것이라고는 오직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 하나뿐이었다.

송 목사는 부교역자 생활을 회고하며 교회, 집, 학교 밖에 몰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같은 교단의 선배 목회자들이 송 목사를 부교역자로 부르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송 목사는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마치면서 그동안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송 목사를 부교역자로 부르는 교회는 많이 있었지만 송 목사는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유학을 갈 것인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기도 가운데 개척으로 강력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꼈고, 그 부르심을 거역할 수 없었다.



송정수 목사는 백석대학교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001년 2월에 행복한제자교회를 개척하여 현재까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빈손으로 시작한 개척 교회

송정수 목사 부부는 수원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부교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나올 때 교인들 중 그와 함께 서울에서 개척을 하자고 한 이들이 있었으나, 송 목사는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국 아무런 연고가 없는 수원에서 2001년 2월 개척 교회를 시작했다. 그 해는 송 목사가 34세의 나이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던 해로, 등록금 걱정에서 해방되자마자 시작된 개척 교회 목회였다.

개척 멤버는 송 목사 부부 2명과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들 예담,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이었던 처조카 정환수 형제, 이렇게 네 명이 전부였다. 부부는 그동안 살던 전셋집에서 더 좁은 곳으로 이사하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복합 상가의 한쪽 귀퉁이에 있는, 이전에 당구장으로 사용되던 22평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다. 근처의 미술학원에서 버린 칸막이 몇 개를 갖다 놓고 발을 쳐서 인테리어를 하고,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 예배하는 공간이었다.

처음 개척했을 때 교회 이름을 송 목사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이름을 따서 신세계교회로 지었다. 개척하기 직전까지 사역했던 교회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송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하니 그 교회에서 사용하던 낡은 승합차 하나를 내주었는데, 거기에 '신세계교회'라고 이름이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도색을 새로 할 비용도 없어 그냥 거기 적혀 있는 이름을 쓰기로 한 것이다.

김영미 사모는 그 당시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한다. “마른 막대기가 허허벌판에 던져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월세와 관리비 등 최소한의 교회 운영비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필요한테 어떻게 충당할지가 걱정이었다. 송 목사는 그렇게 걱정하는 사모를 1년만 버텨보자는 말로 설득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냈으니 한 달에 100만 원씩 까먹는다고 생각하면 1년은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다. 그렇게 1년 만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교회가 세워졌다.

위기 속에 만난 CAL세미나

개척 초기에는 어떻게든 출석인원을 늘리는 것이 목표였다. 조카와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 몇 명이 나오기 시작하자 ‘이 청년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게 하려면 재미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에 청년들과 운동을 하고 윗놀이와 같은 게임을 하는 것이 교회의 주 사역이 되었다. 게다가 이 청년들은 오갈 데가 없는 형편이었기에 결국 송 목사 부부가 데리고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김영미 사모에게는 그 당시 청년들이 쓰는 전기세, 수도세, 쌀, 식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월세를 밀리지 않게 하였고, 밥을 굶기시지도 않았다.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개척 후 1년이 좀 지나서 송 목사에게 결정적인 목회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는 월세나 생활비 때문이 아니었다. 늘 재미있게 해주고, 함께 데리고 살며 재워주고 먹여주었던 청년들이 한 명씩 개인사정으로 떠나갔고, 결정적으로 개척 멤버였던 조카가 부담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며 떠나버렸다. 조카마저 그렇게 떠나자 송 목사는 큰 상실감에 빠졌다. 송 목사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이런 낙심과 위기 상황에서 송 목사는 제자훈련지도자세미나(이하 CAL세미나)를 소개받았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위로를 받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참석한 세미나였다. 그러나 그때 CAL세미나는 송 목사의 목회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렸다.

송 목사는 CAL세미나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벌써 9년이나 지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송 목사는 CAL세미나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부교역자로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숫자, 헌금 숫자를 세면서 목회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옥한흠 목사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없이 살아도 행복한 제자로 살자

CAL세미나 이후 송 목사는 교회 이름을 지금의 '행복한제자교회'로 바꿨다. 제자훈련 사역을 하기로 마음먹었기에 '제자'라는 단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다고 한다. 그는 옥한흠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반드시 제자훈련 목회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지만 내가 제일 못나 보이고 작아 보였습니다. 조카가 떠나버리자 모든 것이 소진되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광인론 시간에 옥한흠 목사님께서 ‘뭐 때문에 목회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송 목사는 지금까지 자신이 부교역자로서 열심히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것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매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 숫자, 헌금 숫자를 세면서 목회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그에게 옥한흠 목사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가르침은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뒷자리에 앉아 한없이 울다가 새벽에 기도실에 가서 회개기도를 하였고, 자신의 목회철학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제자훈련'에 걸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제자교회'라는 이름은 이미 너무 흔한데다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해서 '행복한제자교회'로 짓게 된 것이다. 성도들이 다들 가난했기에 교회 이름 안에 “없이 살아도 행복한 제자로 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교회 이름을 바꾼 데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CAL세미나를 통해 제자훈련을 목회의 방향으로 삼기도 했고, 신세계교회라는 기존의 이름이 이단으로 오해를 받기도 해서 이름을 바꾸긴 해야 하는데 결정적으로 간판을 바꿀 돈이 없었다. 그런데 그때 송 목사 부부가 제자반 1기생들과 소형차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다른 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났다.

결국 단체로 입원을 하게 되었고,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 그 당시만 해도 훈련생들 모두가 출산 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고 전기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그 받은 합의금에서 십일조를 떼어 교회에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 돈이 정확하게 교회 간판을 새로 달 수 있는 비용이 되었던 것이다.



다. 그리고 시작하면서 아주 마음을 굳게 먹었지요. 무조건 변화가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성경공부가 아니다, 목적은 변화다.’ 그래서 변화되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했지요.”

송 목사는 훈련생들에게 인간적인 방식을 버리고 성경적인 방식으로

살아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적인 방식으로 살다가 다 망하지 않았느냐, 이제 한 번 성경적으로 살아보자고 도전했다. 한 과를 진행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실천하게 하였다. 한 과를 공부한 후 모두 전도를 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최선을 다했건만 1년 만에 만족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훈련생들의 출발점이 워낙에 바닥이었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오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에 선발과정도 전혀 없이 영적으로 바닥인 사람까지 훈련생으로 받아들였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도 있다.

1기생 한원옥 집사는 제자훈련을 받던 당시 알코올중독 상태였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당시 제자훈련에 지원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좌충우돌 제자훈련, 변화되는 사람들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을 받을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기도를 시작하고 6개월 후, 5명의 훈련생을 모집하여 1기 제자반이 꾸려졌는데, 송 목사 부부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 모이기 시작했다.

송 목사 부부나 훈련생들이나 모두 사회적으로 밑바닥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알코올중독인 사람,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20대의 이혼녀, 대학생인 조카,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목사 부부 등이 그 구성원의 이력이었다. 송 목사는 1기 제자반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쨌든 제자훈련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

훈련생들이 충분히 양육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송 목사가 제자훈련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며, 타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련생들은 술, 담배를 끊는 것은 기본이고 일을 할 때, 돈거래를 할 때 등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방식을 찾고 따르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지금 같으면 저는 제자반에 선발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저는 당시 다른 훈련생의 집에 얹혀살고 있었는데 제자훈련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했죠.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말씀대로 살자, 변화되자’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잘 따라가질 못했죠. 어느 날 제자반 엠티를 가는데, 목사님이 ‘변화될 각오가 된 사람만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뒤틀려서 저 혼자 엠티에 빠지고 얹혀사는 집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술을 잔뜩 먹고 잠들어 버렸죠. 엠티가 끝나고 같은 훈련생이었던 집주인이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안에서 자고 있고 문을 열어주질 않으니 결국 창문을 뜯고 들어와서는 저를 깨우더라고요.”

코칭 포인트 1 - 선발

송정수 목사가 처음에 제자훈련을 시작할 때에는 선발과정이라는 것을 거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결국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3년이라는 오랜 훈련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그러나 개척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의 선발은 중요하다. 송 목사는 훈련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식히지 못하고 훈련을 시작했지만, 지금은 선발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적당한 시기가 되었다.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성도가 없을 경우, 조금만 마음을 버리고 충분한 양육훈련 기간을 가지면서 한 해를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훈련생들이 충분히 양육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송 목사가 제자훈련의 열매를 맛볼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대로 살 것을 요구하며, 타협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훈련생들은 술, 담배를 끊는 것은 기본이고 일을 할 때, 돈거래를 할 때 등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방식을 찾고 따르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 결국 1기 제자반은 수료하는 데 3년이 걸렸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감사하게도 훈련생들은 성경대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 갔다. 알코올중독자였던 한원욱 집사는 술을 끊었고, 지금은 안수집사로서 교회의 각종 사역을 섬기고 있다. 그 외에 다른 훈련생들에게도 삶의 변화는 계속 일어났고, 그것이 다른 이들의 눈에도 분명하게 보였다. 1기생이 1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삶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제자훈련을 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2기 제자반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제자훈련이 이어져 이제 6기 제자반이 훈련 중에 있다.

행복한제자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 정은주 집사를 빼놓을 수 없다. 정 집사는 어릴 때에 신앙을 가졌으나 집안의 어려운 일 때문에 실족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 이혼 후 딸 하나를 데리고 살면서 교회가 있던 상가건물 1층의 김밥집 고용사장으로 일하고 있었으나 따로 정해진 거처도 없었다. 있을 곳이 없어서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잘 때도 있었다. 이를 알게 된 김영미 사모가 교회에 잘 곳을 마련해 주었지만, 정은주 집사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도 예배에 참석하려 하지는 않았다. 김영미 사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느 날 정은주 집사가 저한테 십일조라면서 봉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십일조냐고 했죠. 그런데 이 자매가 어려서 교회에 나간 적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안 하면서도 십일조는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돈도 안 받고 재워주고 있으니 가져왔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 자매에게 ‘이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가슴 아픈 것이다. 철없이 집을 나간 딸이 보내온 돈을 부모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십일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예배에 참석하라고 했죠.”

이렇게 김영미 사모와 알게 된 이후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은주 집사는 행복한제자교회의 1기 제자반에 속하게 된다. 원래 정은주 집사는 매일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당시를 회고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매일 밤마다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죠. 아침이 시작될 때마다 또 잔인한 아침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매일 기대와 소망의 하루가 열리고 있어요.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났죠.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은주 여기 있어요. 저를 사용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예배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한번은 사모님께 딸을 데리고 살면서 한 달에 고정수입 100만 원만 있으면 잘 살 수 있겠다고 했더니, 사모님이 십일조를 100만 원을 해야지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정말 십일조를 100만 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송 목사의 제자훈련이 분명한 제자훈련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지만, 그것이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자훈련 목회가 분명한 목회철학으로 정립되어 있다면, 이런 인생의 바닥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자훈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코칭 포인트 2 - 양육

행복한제자교회 제자훈련의 특징은 언제 수료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수료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보니 1기가 수료하는 데 3년이 걸렸고, 가수별로 수료하는 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정해진 기간이 없다. 그래서 제자훈련생이 새롭게 선발되면 인도자나 훈련생이나 보통 3년 동안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시작한다. 제자훈련에 들어가기 위한 양육과정이 특별히 마련된 것도 아니고, 사역훈련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양육과정-제자훈련-사역훈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섭렵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 목회자가 탈진할 위험이 크다. 지금 행복한제자교회는 공식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만들 적절한 시기이다.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대그룹이나 중그룹 환경에서 양육과정을 따로 떼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제자훈련 기간이 훨씬 많이 줄어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인도자의 부담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사역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사모나 혹은 평신도 중에서도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양육과정의 일부를 맡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이다.

사실 송 목사의 제자훈련이 분명한 제자훈련 철학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지만, 그것이 체계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제자훈련 목회가 분명한 목회철학으로 정립되어 있다면, 이런 인생의 바닥에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자훈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행복한제자교회 건축이야기

행복한제자교회의 건축 과정에서 제자훈련의 열매를 찾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개척 교회가 그렇듯이 행복한제자교회도 예배당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고 그 열매가 드러나면서 성도들은 50~60명 정도로 불어났고, 비교적 젊은 부부들이 많았기에 아이들도 늘어나서 교육관이 필요했다.

송 목사 부부는 따로 건축을 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예배당과 교육관을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이사를 하자고 교회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다. 성도들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다들 가난했기 때문이다.

송 목사는 일단 기도회 중에 성도들에게 형편껏 현금 작정서를 내보라고 독려했다. 이미 성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에 아무리 많이 작정을 해도 3,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작정 액수를 집계해 보니 3억 7,500만 원이 나온 것이다. 그 액수에 송 목사도 놀랐고, 성도들도 모두 놀랐다. 서로 그렇게 많은 현금을 작정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송 목사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냥 작정하라니까 맘껏 써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성도들은 작정한 액수의 현금을 모두 드렸다. 다들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겨서 월세, 전세 보증금을 빼서 현금을 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된 땅을 저당 잡혀서 현금을 했다. 송 목사 부부는 성도들의 현금을 오히려 말리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을 모아 현금을 하면서 예배당 건물을 새로 짓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회 건축을 위한 땅을 사기 위해 경매로 나온 땅을 알아보고, 마침 좋은 땅을 발견하여

낙찰받기 위해 7,3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 수원시 이목동에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전원지역의 땅을 찾았다. 늘 콘크리트 벽에 갇혀 사는 아이들에게 주일만이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래전부터 불법으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었다. 물론 강제로 그 사람을 쫓아내고 건축을 진행해도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송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다운 것이냐는 고민에 빠졌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성도들 역시 살 곳을 찾지 못하여 고통받았던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결국 그를 내쫓고 그 자리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없었고, 공탁금 7,300만 원을 잃었다.

송 목사는 성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빼서 현금한 돈을 잃었다고 생각하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성도들은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다’라며 오히려 송 목사 부부를 위로했다.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교회에 아무런 분쟁이 없었고, 오히려 서로를 다독였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이 일은 행복한제자교회가 더욱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행복한제자교회 예배당은 그 낙찰받았던 땅의 옆집이다. 그 옆에 있던 전원주택을 구입하고 리모델링하여 예배당을 지었다. 전원주택 구입만으로 재정은 바닥이 났기에 성도들은 한 번 더 현금을 모았고, 그래도 건축비가 모자라 뼈대를 올리는 것만 건축가의 도움을 받았을 뿐, 다른 모든 공정은 성도들이 다 함께 진행했다.

직장을 그만두고 교회 건축을 도왔던 형제도 있었고, 여자 성도들은 월차를 내면서 건축을 도왔다. 성도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벽돌을 쌓고 콘크리트를 바르고 내부 장식을 했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함께 지은 예배당은 1년 정도 걸려 완공되었다. 지금 행복한제자교회 예배당은 비전문가가 지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만약 송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가 더 성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위치를 결정하려 했다면 지금 위치에 건축을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송 목사는 더 많은 성도들이 유입되어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했다. 만약 그가 한 사람 철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건축 당시 5기 제자훈련을 받고 있었던 김영진 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 집사는 사업이 잘되고 수입이 많았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아서 교회 건축을 주도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 이기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 모습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영적 시력을 주시기까지 제가 얼마나 눈먼 소경이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했을 때에는 오직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했다면, 행복한제자교회의 건축은 늘 주님이 드러나는 건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셨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변의 반대가 심했다. 차로 공사용 차량을 막기도 하고, 건축 후에는 성도들이 주변에 차를 못 대도록 철장을 치는 등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송 목사와 행복한제자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 지금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교회가 되었다. 처음에는 철장을 치며 주차를 막았던 옆 건물주가 이제는 주일마다 자기 땅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새로운 도약을 향해

행복한제자교회는 분명히 제자훈련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다. 그것은 그들이 매년 진행하는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보아도 알 수 있고,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소그룹을 보아도 알 수 있다.

행복한제자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이다. 행복한제자교회 개척 초기부터 진행한 해피데이 전도축제는 자랑할 만한 사역이다. 축제에 와본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 수가 500명쯤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70명의 성도들이 일인 다역을 감당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행복한제자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연약한 교회들을 방문하여 전도 행사를 대행해 주는 사역도 감당한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은 아직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제자교회는 눈여겨볼 만한 교회이다. 왜냐하면 숫자와 상관없이 한 영혼에 집중하는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목회자가 있고, 행복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훈련된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깜짝 놀란다고 한다. 어떻게 그 규모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제자훈련이 있다. 훈련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모든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특히 전도와 선교에는 온 에너지를 쏟아서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한제자교회는 소그룹이 살아 있는 교회이다. 특수한 사역을 중심으로 구성된 목적 소그룹(‘셀’이라고 부른다)과 말씀 나눔 중심의 마을 소그룹이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교회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성도들이 가정 같은 분위기로 모이고 있다. 그것은 개척 초기부터 송 목사 자신이 가정을 오픈해서 직접 숙식을 같이 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해온 영향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 소그룹의 진정한 맛을 본 사람들이 인도하는 소그룹은 늘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매력이 있다.

행복한제자교회의 제자훈련은 아직 본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는 힘들다. 아직도 변화되어야 하는 성도들이 많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이 교회 곳곳에 미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제자교회는 눈여겨볼 만한 교회이다. 왜냐하면 비교적 적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이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한 영혼에 집중하는 제자훈련 철학을 가진 목회자가 있고, 제자훈련 수료 전과 별반 달

라지지 않은 척박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행복한 제자라고 생각하는 훈련된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이다.

훈련을 통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후 6:10)들이 모인 교회,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에서 들려올 아름다운 부흥의 소식을 기다려 보자. 

(박희원 목사)

코칭 포인트 3 - 사역훈련을 시작하라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분리하고, 사역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그룹 리더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교회의 인원이 더 늘어났을 때 어려움 없이 교회의 리더십이 바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제자훈련 교재 1권을 진행할 때 기초적인 내용을 일일이 가르치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인도자가 탈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에 들어가기 이전 과정으로써 양육 과정을 만들어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사역훈련을 따로 하지 않고 제자훈련 교재로 3년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안에 전체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사역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